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5. 16.(목) 06:00 < 5.16.(목) 석간 > 배포 2024. 5. 15.(수)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 마우스 원 클릭으로 대미 철강 통관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은 미 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되었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BP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한-미 철강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 개요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호철 (044-203-5940)
		담당자	사무관	정인경 (044-203-5944)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책임자	과 장	노지선 (042-481-7970)
		담당자	사무관	김우선 (042-481-797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

□ **일시** : ’24.5.15.(수) 오후 2:30 - 4:00(현지시각)

□ **장소** : 워싱턴 D.C.,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본청(Ronal Ragan Building)

□ **참석**

○ (우리측) 박대규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장, 철강협회 상무, 코트라 무역관, 현지 지상사(포스코, 현대제철) 등

○ (미측)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AnnMarie Highsmith 무역단장, Sonny Bhagowalia 정보기술단장, USTR Daniel Matthews 과장 등

□ **행사내용** : 내빈 인사, 발표 및 코멘트, 리본 커팅, 리셉션

※ **시스템 개요** : 美 CBP의 쿼터 관리 전자문서교환 시스템으로 韓 철강협회 쿼터 승인 시스템과 연계, 수출입 정보 및 쿼터 물량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

- 철강협회 승인서(전자문서)가 자동 송부되면 美 CBP가 이를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하여 통관여부를 결정, 결과를 회신

* 세계 최초 미국과의 공산품 쿼터·통관 관련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